

## Engineering 일의 6단계 느낌

- 1단계: 아는 만큼 보인다.
- 2단계: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넓은 한계의 큰 Gap을 느낀다.
- 3단계: 알 것과 포기할 것을 구분하면 그 큰 Gap이 줄어들음을 느낀다.
- 4단계: 꼭 알 것을 기록하고 Database하면 그 Gap이 훨씬 줄어들음을 느낀다.
- 5단계: 그 기록하고 Database한 것을 남들에게 (domestic & global) 발표/설명하면 그 Gap이 훨씬 더 줄어들음을 느낀다.
- 6단계: 그 기록하고 발표하고 질의 받은 것들을 통해 자신의 결정이 설계 수명까지 문제없음이 입증되면 (또는 입증할 수 있으면) 그 Gap이 거의 사라짐을 느낀다.

*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?*